
한덕수로 향하는 무속 빌드업

왜 한덕수 후보의 주변에는 무속의 그림자가 끊이지 않습니까.

단일화가 난항을 겪던 지난 7일, 풍수가 백재권 씨는 한 후보의 대선 출마를 두고 사적인 권력욕 대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며 뜬금없이 한 후보를 지원 자격했습니다.

백 씨가 누굽니까. 2018년 인사동 술집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점장의 관상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고, 22년에는 내란공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 관저 이전을 위해 육참총장 공관을 방문했다고 밝혀진 사람입니다.

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‘악어상’이라며 세상을 정화할 운명이라고 한 것 점쳐줬던 백재권 씨가, 이제는 한 후보를 “기린상”이라며 안정된 인물이라 점치고 있습니다.

또, 윤석열 정권 내내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자칭 ‘천공스승’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“한덕수 국무총리가 (대통령) 해야 돼”라며 “(국정현안)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 출마선언을 하면 돼요”라고 말했습니다.

지난 정권에서 무속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이 일제히 한 후보를 띄워주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입니다. 무속 논란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던 윤석열의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큼니다.

뿐만 아닙니다. 한 후보의 배우자 최아영 씨는 언론에서 한 후보를 두고 “이 남자 공무원 하는 거 답답했거든요”, “이 사람도 되게 웃겨요”라고 언급하며 자신이 명리학 공부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.

김건희 여사가 “우리 남편은 바보다”, “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”라며 윤석열을 평가했던 모습이 오버랩되는 지점입니다.

국민들께서 물으실 겁니다. 무속 의혹 윤석열과 무속 의혹 한덕수의 다른 점이 대체 무엇이냐고. 한 후보는 단일화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무속 의혹에 대해

국민들께 명쾌한 해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5월 9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, 박관천